

# 2분기 국내총생산 -0.2% '역성장'

## OECD 15개국 중 12위 '최하위권'

1분기 고성장 기저효과 크지만  
지속적 내수위축도 상당한 영향  
리투아니아 0.9%로 1위 차이

우리나라는 올해 2분기 주요국 경제 성장률 비교에서 하위권에 자리했다. 미국 및 유럽연합(EU) 국가들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앞선 1분기에 성장을 훌쩍 뛰어넘는 성장을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 탓이 크지만, 지속되는 내수 위축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에 더해 건설투자 지표까지 부진했다. 또 수출 증가 폭마저 둔화했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역성장(-0.2%)하며, 동분기 수치를 발표한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날 기준 12위에 처져 있다. 헝가리와 공동 12위로, 한국 밑에 위치한 회원국은 현재 2개국뿐이다.

미국 경제는 0.7% 성장하며 15개국 중 3위에 올랐다. OECD 회원국이자

EU 소속인 국가들의 평균은 0.3%로 집계됐다. 리투아니아가 0.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페인(2위·0.8%), 캐나다(4위·0.5%), 체코와 프랑스(공동 5위·0.3%) 등이 상위권에 위치했다.

또 멕시코와 벨기에, 이탈리아가 성장률 0.2%, 포르투갈이 0.1%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는 0.0%였다. 이 밖에 한국과 헝가리, 스웨덴, 라트비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총 회원국 수가 38개인 관계로 OECD 평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한국은 평균치 하회 가능성이 크다. 향후 38개국 비교 시 중하위권 또는 하위권이 유력하다. 우리나라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0.5%) 이래 여섯 분기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제시한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1분기에 비해 0.2%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1.1%를 나타냈고 설비투자(-2.1%)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출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소폭 늘어난 반면 재화 소비가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 및 토목건설이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자동차)에서 늘어났지만 기계류(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가 줄면서 총합이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수출의 경우, 2분기에 0.9%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1.8%)와 지난해 4분기(3.9%)와 비교해 둔화했다.

기저효과와 영향도 성장률을 끌어냈다. 앞선 지난 1분기에 GDP 성장률이 1.3%에 달했다. 당시 미국(0.4%)과 EU 평균(0.3%)을 크게 웃돈 바 있다. 이스라엘(3.4%)과 튀르키예(2.4%), 칠레(1.9%) 등은 한국에 앞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상순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앞서 6월호 진단에서도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뒤편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 외환보유액 13억 달러 늘었다

### 외화외평채 신규발행 등 영향

한은, 지난달 말 기준 4135.1억 달러  
6월 말 기준 보유액 규모 세계 9위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약 13억 달러 늘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5억 1000만 달러로 한달 전보다 13억 달러 증가했다. 외환 당국이 보유한 외환액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하다 7월 들어 반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말 효과 소멸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감소했지만 외화외평채 신규발행, 미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제·회사채 등 유가증권(3670억 5000

만 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 5000만 달러) 등이 각각 30억 7000만 달러, 3억 달러 늘었다.

반대로 예치금(223억 5000만 달러)은 20억 8000만 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 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4122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이 3조222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215억 달러)과 스위스(8838억 달러), 인도(6520억 달러), 러시아(5935억 달러), 대만(5733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77억 달러), 홍콩(4163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나유리 기자 yu115@

## 농식품부, 창업규제 철폐... 청년농업인 육성 팔 걷었다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  
농업법인 범위 전후방사업 확대

정부가 청년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 이를 통해, 위기에 봉착한 농업 및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 주도하의 기획·참여가 주를 이루는 농정체계 구축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의 단순 생산뿐 아니라 농산업 및 농촌 전반에 걸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충북 진천에 자리한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롤스퀘어(Root Square)'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들 아이디어를 비롯해 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충북 진천 소재 청년창업 복합문화공간 '롤스퀘어(Root Square)'에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장 목소리를 정부가 그간 폭넓게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자유로운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영농 관련된 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농업법인 사업범위

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농정책지원사업 수혜 시 의무영농기간 동안에는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규제해 왔다.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가공 및 체험 사업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해 신속한 사업확장을 지원한다. 신축비용이 비싼 고정식온실 등만 대출이 가능했던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용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추가한다. 이로써 자금동원력이 낮은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덜고 경영위험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30헥타르(ha)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가루쌀 생산단지, 청년농업인 조직이 경영하는 소규모 가루쌀 단지(5~30ha)도 참여가능한 시군단위 시범단지를 운영해 초기 영농정책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R&D·투자로 기술리더십 공고화 해야"

>> 1면 '현재에 안주 말고...'서 계속

SK하이닉스는 이곳에서 지난 3월부터 업계 최고 성능의 AI용 메모리인 5세대 HBM(HBM3E) 8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차세대 HBM 상용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HBM3E 12단 제품을 올해 3분기 양산해 4분기부터 고객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6세대 HBM(HBM4)은 내년 하반기 양산

을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HBM 생산 라인을 점진한 뒤 과 대표와 송현종 사장, 김주선 사장 등 SK하이닉스 주요 경영진과 함께 AI 시대 HBM을 비롯한 D램, 낸드 기술, 제품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AI의 거센 흐름 속에서 SK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면 지속적인 R&D와 효과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한치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사업 환경 속에서 힘을 모아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해외 빅테크들이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리더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3만2000명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묵묵한 노력의 성과로서 앞으로 SK하이닉스가 AI를 이끄는 일류반도체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3분기 양산해 4분기부터 고객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6세대 HBM(HBM4)은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플랫폼종사자 88.3만명... 11.5% 증가

고용부, 전업형 줄어들고 부업형 늘어  
IT서비스 141%, 전문서비스 69% ↑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운전 등 업종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업형 종사자는 감소한 반면, 부업형 종사자는 늘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플랫폼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년 79만5000명 대비 11.1%(8.8만명) 증가했다.

플랫폼종사자는 2021년 66만1000명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플랫폼 종사자의 지속 증가 추세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플랫폼 일자리 시작 동기로 '더 많은 수입'(36.1%), '일하는 시간·날짜 선택'(20.9%), '직장·조직 생활이 안맞아서'(10.2%), '가사·학업·육아 등 병행 위해'(7.5%) 순이었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히 전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전문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배달·운전(-5.5%) 분야는 과거와 달리 감소로 전환했다. 이는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배달 수요 감소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 플랫폼종사자 직종별 규모)

(단위: 천명, %) /자료=고용노동부

직종	'21년	'22년	'23년	증감률('22)
배달·운전	502	513	485	Δ5.5
전문서비스(교육상담 등)	53	85	144	69.4
컴퓨터단순작업(데이터입력 등)	31	57	87	52.6
가사·돌봄	28	53	52	Δ1.9
창작활동(디자인 등)	19	36	50	38.9
IT 서비스(SW개발 등)	14	17	41	141.2

또 맞벌이 확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도 가사·돌봄(-1.9%) 분야 종소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적정 인력수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플랫폼종사자 성별은 여성 비율이 29.6%(26.1만명)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전년 25.8%(20.5만명)에서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이었다.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주업형의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57.7%→55.6%)한 반면, 부업형(21.1%→21.8%)과 간헐적 참가형(21.2%→22.6%)은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